



'월드컵과 여성'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기술지원부장 박병상

지난 6월10일 미국전이 열리던 날이었다.

시청근처에서 업무를 마치고 잠시나마 TV에서만 지켜보던 응원전을 직접 볼 수 있게되었다. 대형 TV를 중심으로 전면에는 '가자, 16강으로'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팽과리를 비롯한 응원도구들도 눈에 띄었다. 물론 주위는 '붉은 악마'의 T-shirt를 비롯하여 붉은색 일색이었다. 시작부터 열광의 도가니 그 자체였다. 교실에서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집중시키던 학생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에는 광기가 흐르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흘렀다. 오늘 역시 이번이 발생? ?조짐이다.

대~ 한민국. 짹짹 짹짹

한 골을 먼저 먹고 응원소리가 높아가고 있을 즈음, 바로 앞의 20대 여대생4명이 서로 부둥켜안고 펠쩍펠쩍 뛰었다. 그 옆에서 TV를 지켜보던 아줌마 두 사람은 우리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피성을 질러댄다. '짜~' '끼약~' 다음 순간 그 중 한 아줌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뒤집어진다. '근데 골은 누가 넣었는데?'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는 것은, 원

만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유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여성들은 이번 월드컵 기간동안 TV 시청률을 끌어올린 일등 공신이란단다.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에 비해 여성들의 축구 시청률은 20% 가까이나 상승했다지 않은가?

길거리 응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길거리 응원시 거리에서의 체감비율이나 TV로 보여주는 어렵에 의하면 6:4정도로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 같다. 우리 집만 보더라도, 얼굴도 모르는 아래층 여중생이 느닷없이 현관 벨을 누르고는 태극기를 빌려갔다. 교복치마에 태극기를 오려붙인 여중생에서 얼굴에 '코리아 파이팅'이라는 문신 스티커를 새긴 중년 여성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도 제각각 이다.

이들이 갑자기 축구에 열광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새삼 축구가 재미있어서? 그도 아니면 우리의 안정환과 김남일, 송종국을 비롯해 데이비드 베컴, 마이클 오웬, 누노 고메스 같은 그라운드의 꽃미남들을 보는 재미로?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재미있고 신명나기 때문일



기술 표준가족

것이다. 이렇게 신바람나는 거대한 집단놀이판에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끼어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순을 바라보는 나로서는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만해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던 척박한 시대였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죄 아닌 죄로 상급학교의 진학은 염두도 못 내고 입하나 줄이겠다고 타향으로 돈 벌러 가는 게 다반사였다. 그것도 남성인 오편나 동생들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 하물며,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으면 집안이 망한다고들 걱정이 태산같았다.

이제는, 그녀들의 힘차고 단합된 목소리가 담이 아니라 전 세계를 넘어 월드컵 4강까지 이루는데 일조를 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까?

그리고 보니, 금남의 문이던 3군 사관학교의 담을 넘어 남성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도 수석을 차지하는 여생도가 탄생했는가 하면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여자 축구팀이 생긴 것도 오래 전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호주제를 폐지할 날도 머지 않았으니 하는 말이다.

다시 월드컵 응원 얘기로 돌아가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의 길거리 응원을 놓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기도 했다. 광기라느니 '집단 히스테리'라느니 하는 시각이 그것인데, 그런 측면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빨간 옷

을 입지 않고 등교했다가 왕따를 당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다. 시합이 끝나면 수도권인 본당의 대로변에서도 광기는 벌어졌다. 승용차 밖으로 몸체를 내밀고 꼭 예운전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수십 명이 트럭에 올라타서 팽과리를 울리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질주하는 것은 목숨을 건 광란이었다. 또한 월드컵이 끝난 후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말이 '이젠 무슨 재미로 살지'가 된 것만 보아도 월드컵의 열기를 대변해준다. 그렇지만 나치즘에 사로잡힌 독일 군중과 김정일에 열광하는 북한 주민이나 홀리건 같은 광기 어린 집단



과 구별짓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바로 여성의 참여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힘있는 남성들로 구성되었던 기존 집단과는 달리 이 집단에서는 일방적인 선동이나 폭력이 먹혀들지 않았다. 어린 학생, 여성, 청소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주축이 된 길거리 응원단은 각자 자유롭고 창의적인 태극기 패션으로 무장한 채 즐거움을 마음껏 발산하여 개국 이래 최대의 카니발을 자발적으로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자긍심과 일체감은 월드컵이 안겨준 최고의 수확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동포들이 대한민국 태생임에 기뻐 날 뛰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요골이 쪼개 오면서 눈물! 이 흘렸다. 길거리 응원단이 보여준 성숙한 질서 의식과 평화적 태도는 어느 단체나 정부가 백날천날 강조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붉은 악녀들'의 응원문화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도 열어 주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정치가와 행정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계속 국회를 비우고 이천투구에 매진할 것인가? 이전 그들도 엄청 바뀌어야 한다. 민심을 존중하고 민의를 파악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은 물론 잘못된 법

률은 속히 개정해야한다. 그것도 월드컵에서 보여준 태극전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붉은 악녀들의 응원열기 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행정 부서에서도 이번의 단합된 힘과 자긍심을 자손만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